

장애 학생 일자리사업 지속화 '맞손'

도교육청-장애인개발원 협약
특수교육대상 학생 취업연계
현장실습·취업률 제고 힘모아



전북도교육청은 26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 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 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김숙 교육국장, 임대섭 유초등 특수교육과장, 채정희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정애진 직업재활팀장 고귀연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 최재선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 등이 함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 협력 △장애인 일자리 창출 협조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 및 협력 △향후 각 기관의 업무범위 확장에 따른 현장중심 고용 연계 확대 적극 협력 등이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관

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면서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장애학생들의 자립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과의 업무협약은 장애학생이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보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직업 관계기관과의 일자리사업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으로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직업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6일 도내 14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고, 교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함께 합니다"

전북대 농생대, 전북능협과 홍보 캠페인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백승우·이하 농생대)은 26일 도내 14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고, 교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백승우 학장을 비롯한 교직원 70여 명과, 농업중 앙회 전북본부 김영일 본부장과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백승우 학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지역 경제

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북대 농생대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독려해 지역발전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태어난 고향이나 마음에 두고 있는 고향(본인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제외)인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발전에 사용하는 제도다.

/정은성 기자

교육부 등 지원 '기초연구실사업' 선정

전북대 김태욱 교수팀, 13억여원 지원받아 인터랙티브 전자섬유 연구 수행

전북대학교 김태욱 교수(유연인쇄 전자공학과, JBU-KIST 산학연융합학과·사진)팀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집단 연구지원사업인 기초연구실사업(BRL)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틀이 되는 연구팀을 육성 지원하고, 창의적 주제 발굴 및 연구방법 등의 연구 노하우를 신진 연구자에게 전수함으로써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초연구실 선정을 통해 김 교수팀은 2026년까지 13억7,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침은어파이버 기반 인터랙티브 전자섬유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이 사업에는 고려대 학교(왕건욱 교수, 민한울 교수), 아주대학교(박성준 교수) 연구팀이 함께 참여한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과제는 기존 2차원 웨이퍼 기반의 반도체를 섬유(실)에 구현해 단일 전자섬유를 기존 반도체 수준으로 집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교수팀은 1차원 섬유 기판에 구현하고자 하는 소재의 코팅을 위한 물성제어, 공정개발과 함께 소자를 집적화하는 새로운 전자섬유 플랫폼 기술을 제시, 이를 이용해 고집적 고성능, 그리고 다양한 기능의 소자(센서, 에너지, 안산 인지)를 융합해 반도체 섬유(실)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섬유표면에 반도체 소자를



집적화하는 '침은어파이버' 공정 및 소자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팀은 지난 4년 여 간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에 반도체 소자를 구현해 내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 성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네이처 자매지인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해 차세대 웨어러블 개발의 혁신적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연구 책임자인 김태욱 교수는 유연 반도체, 지능형반도체(뉴로모픽), 전자섬유 공정 및 소자 전문가로 섬유 한 가닥에 반도체 소자를 집적화하는 '침은어파이버'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동 연구자인 고려대 왕건욱 교수는 뉴로모픽 소자 전문가로 인지 섬유소자 구현에, 고려대 민한울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전문가로 섬유형 에너지소자 구현

에, 아주대 박성준 교수는 센서전문가로 섬유형 ECG 센서 집적화에 각각 기여할 예정이어서 더 큰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김태욱 교수는 "침은어파이버 기반 인터랙티브 전자섬유기술은 차세대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직조형 기반의 전자섬유가 아닌 섬유의 표면에 다양한 전자소자들을 동시에 집적화함으로써 전자소자들 사이의 물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동작측면에서 상호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고집적 고성능 전자섬유기술"이라며 "기존의 2차원 웨이퍼 기반의 반도체플랫폼이 제공하지 못한 소자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능형 웨어러블 전자소자 개발의 핵심 원천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ChatGPT 활용

기업분석 캠프 운영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ChatGPT 활용 기업분석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23~24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캠프는 도내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채용 트렌드에 따른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대화형 인공지능(AI) 기술인 ChatGPT를 활용한 취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ChatGPT 시대, 취업 준비 전략 △ChatGPT와 AI가 가져올 미래 변화 △ChatGPT 활용 도내 기업분석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가자들이 직접 ChatGPT를 활용한 기업분석 경진대회를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권도현(기계공학과 4년) 학생은 "ChatGPT의 등장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막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AI 등 미래 변화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취업을 모색해야 할지 전 환점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ChatGPT를 활용해 취업 준비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상행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본인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ChatGPT를 활용해 기업 이해 및 전략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미안바 KTCS

교수진 초청 간담회 열어

전주비전대학교(총장직무대행 우병훈)는 26일 미안바 KTCS 교수진 및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KTCS 부총장 및 미안바 교회 지도자 6명, 그리고 전주비전대 부총장과 국제교류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안바 유학생들의 유학 생활 및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KTCS Dr.NZau Gan 부총장은 "전주비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미안바 학생들이 미안바의 미래이자 비전"이라며 "전공분야별 유학생활을 통해 선진 학문으로 실력을 쌓고, 이후 미안바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인사철 공직기강 확립 나서

도교육청, 30일까지 점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정기간사철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나 직무태만 등 공직부패 해이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2인 1조로 3개 점검반을 편성, 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 및 공립 학교를 대상으로 26~30일까지 진행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근무지 이탈, 허위 출장 등 부패 위반을 비롯해 △급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훼손 행위 △학교회계 등 공공관리 실태 △기타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등이다. 아울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청탁금지법·갑질근절 등의 교육 여부와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등도 점검한다.

이후 도교육청은 적발된 위반·부당사항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기로 했다.

이훈열 감사관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인사철을 맞아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장이 책임지고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제1기 인권위' 공개모집

30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30일까지 '제1기 전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위원 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당면적 위원(교육국장, 교육인권센터장) 2명과 위촉직 위원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전북교육청의 정책과 평가 등에 관해 심의한다. 특히 학교 구성원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공개모집과 기관 추천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12명을 위촉하고, 당면직 위원(2명)과 교육감 추천 위원(1명)은 최소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북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권위원회의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우편, 팩스(063-237-0120), 이메일(herdang@jedukr)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위촉 대상자로 결정되면 개별 통지하며,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 간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라며 "균형 잡힌 인권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생, 교원, 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효과 'UP'

도교육청, 사전기획 연수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1층 늘봄자리에서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전기획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보유한 학교에 대한 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상학교들은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미래 교육 비전 및 교육과정 수립하고,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 건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한다. 이날 연수는 올해 그린스마트스쿨 대

상 학교 교장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기획 단계 업무추진 방법과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건물의 소용을 통해 정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로는 △군산구암초 △이리북초 △김제초 △월촌초 △남원용성중 △군산제일고 △정읍고 △안원중고 △남원용성고 등 9개교다.

연수 참석자들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사전기획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담감을 덜어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교육연수원, 도교육청과 위탁직무연수 협약 체결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원장 최병연)은 26일 전북도교육청과 위탁 직무연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진로선택 및 생활·교양 교과목 지도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사업의 인공지능 수화, 인공지능 기초 과정을 전주교대에 위탁하기로 했다.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은 26일 전북도교육청과 위탁 직무연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에 포함된 인공지능 수화, 기초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지도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8월 31일까지다.

이에 전주교대는 인공지능 기초, 수화 과목을 7월 말과 8월 초에 각각 운영할 예정이며, 우수 교원의 학습요구 지원 직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최병연 원장은 "우리 대학교와 전북교육청이 손잡고 전북의 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 효과적인 실습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